시 론

주식, 하십니까?

박 대 우
지역발전정책연구원장

최근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를 꼽으라면 단연 '코로나19'일 것이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았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여행도, 차 한 잔의 여유도 부자연스러운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못지않게 우리 일상에 자리 잡은 단어가 '주식'이다. 이제 주식투자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비켜갈 수 없는 화두가 되었다. 너도나도 앞 다투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당연히 높은 수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니혼게이자이의 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각국의 재정지출 규모가 13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돈으로 환산해보면 무려 1경4천500조원이 넘는다. 실로 어머어마하고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은 유동성이 공급된 것이다. 그것도 2020년 한 해에만 지출된 돈이어서 올해 또 다시 시장에 공급될 유동성까지 감안한다면 말 그대로 우리는 지금 화폐의 홍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유동성이 넘쳐나는 동안 저금리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더구나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맞춰 경기 활성화의 시그널이 시급한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취임과 동시에 기대치를 뛰어넘는 재정지출을 예고하고 있으며 하원과 상원의 정치권 지형도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어서 돈 풀기에 우호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월가 역시 새로운 정부와의 허니문이 예상된다. 어디 미국뿐인가. 일본을 비롯한 각 나라가 경쟁하듯 돈을 찍어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라는 단어 앞에서는 '부채비율'이나 '재정건전성' 같은 단어들이 설 자리가 없다.

이와 같은 분위기를 기반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충격에 빠져 있던 2020년 초반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다.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의 역량이 강화된 것도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기관이나 외국인 못지않게 시시각각 변화하는 글로벌 이슈를 파악하고 시장의 흐름을 읽는 감각도 뛰어나다.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과 매출동향까지 반영하는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정보통신 인프라도 한몫을 하고 있다. 증권사 객장을 찾아야만 했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PC와 휴대폰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환경이 갖추어졌다.

개인투자자들의 집단지성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해서 각종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여론조성으로 정부의 정책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금융당국의 뒷걸음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활용한 개인투자자의 승리가 아니겠는가. 투표권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것은 거시적 관점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변화이다. 주식은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증권시장의 종합지수는 국가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잣대이기도 하다.

더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제품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고, 그 기업에 투자하는 자금이 기업 활동으로 순환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빚투'로 불리는 투기적 요소들이 사라지고 저금리 시대에 기업의 성장과 배당에 포커스를 맞추는 안정적인 투자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정부는 주식투자에 대한 유인정책으로 수요를 증가시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에 나서고 기업의 투명한 경영, 주주친화적인 배당정책을 장려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공매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미 선물거래와 ETF(상장지수펀드) 등 다양한 지수연동 상품이 있지 않은가. 매입하지도 않은 현물을 빌려서 그것도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래는 당연히 비정상적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금융당국이 허용하고 있는 시장조성자 제도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누가, 어떻게 시장을 조성한다는 것인가? 인위적으로 시장을 조정하려는 것 자체가 투자자의 역량과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권위적인 발상이다. 돈은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이익을 쫓고 시장은 늘 한발 앞서가는 법이다. 세계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금융당국이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는가.

홍인화의 '5월이야기'

유네스코 등재 10주년 맞이하는 5·18기록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연구실장

얼마 전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다. 어느 시민이 찾아왔다. 술 냄새가 확 풍겼다. "여기가 뭐하는 곳이여? 80년 5월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버렸어." 몸을 비틀거리며 소리를 질렀다. 소란을 피우지 말아 달라는 말에 그는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증을 내밀며 꼭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유공자 14급이었다. 우리는 얼른 편한 자리로 모신 뒤, 그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80년 당시 카톨릭센터 7층 CBS 방송국에 공수부대가 배치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CBS를 지키려고 찾았다가 몽둥이에 맞아 큰 부상을 입었단다. 과거를 회상하며 굵은 눈물을 흘렸다.

5·18은 가정의 행복까지 앗아갔다. 아내와 이혼한 뒤 아이들을 보육원에 맡기고 죽어버리려고도 했다. 아이들이 "아빠 어디가?" 하는 말에 정신을 차리고 새 가정을 꾸렸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지난 41년 간의 삶을 눈물로 전하며 기록관 문을 나섰다. 필자는 가슴이 먹먹해지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아직도 80년 5월의 아픔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이 적지않을 것이다.

그이는 "어디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묻어둔 이야기들…"이라고 했다. 그렇다.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라도 충분히 들어줄 데가 기록관이라고 생각한 것에 고마웠다. 처음에는 분노한 그이를 맞이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러나 사연을 듣고 보니 숙연해질 수 밖에 없었다. 함께 한 시간 속에서 그이의 굳은 마음은 알게 모르게 서서히 녹아내렸다.

올해로 5·18민주화운동이 유네스코에 등재된지 10주년이 됐다. 이젠 개인 개인들의 기억이 보편화되고 공적기억이 됐다. 유네스코에 세계기록물로 등재되면서 '문화적 기억'으로 되새겨지며 세계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우리들 중 누군가는 아직도 아프고 그 상처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광주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다. 이 운동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운동의 밑거름이 됐다. 벌써 41주년이다. 그러나 여전히 80년 5월의 기억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날의 기억들은 망각의 늪으로 서서히 빠져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망각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기억과 재현의 정치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 특히 1980년 5월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의 항쟁'을 기억해야 한다. 광주 시민들은 10여 일의 시간 동안 죽음을 무릎 쓰고 저항했다. 그 10일간의 항쟁은 민주와 인권 그리고 자유의 소중한 가치를 알게 하는 날들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들을 기억하며, 망각의 역사에 저항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10일간의 항쟁을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10일간의 5·18에서 시선을 돌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동시에 봐야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 갈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올해 유네스코기록물 등재 10주년을 맞이해 다양한 전시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5·18기록물을 일반시민들이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금도 그 당시 많은 이들이 저마다 경험했던 자료와 기록들을 수집하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5·18의 주체는 광주 시민 모두이다. 일상의 소중한 삶을 살아가던 시민 전체가 민주화운동의 주인인 것이다.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왜 항쟁에 참여하게 됐는가? 10일의 기억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5·18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린 사람들이 참 많다.

그들의 기억을 우리는 온전히 보듬어내야 한다. 기억이 묻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튀어나와 제대로 자리매김되었을 때 그 상처에 딱지가 내려 개인의 이야기가 역사로 치환되게 된다. 그래서 5·18의 기억은 기록되고 나눠야 한다. 5·18 41주년, 기록을 통해서 망각의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는 5·18을 다시 끄집어내는 기억의 시간으로 불러내야 하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 그것은 곧 치유의 과정이고, 개인사가 역사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현장칼럼

개인형 이동장치(PM), 이것만은 꼭 알고 탑시다

서 승 옥
완도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저속의 소형 1인용 운송수단을 'PM(퍼스널 모빌리티)'라고도 하고,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한다.

시속 25km/h내외의 속도로 간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고, 전기 모터 및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어 2010년대부터 각광 받고 있는 이동수단이다.

하지만 편리성과 장점이 큰 만큼 위험성도 크다.

지난해 11월초 완도군 약산면에서 60대 남성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바람에 날리는 모자를 한 손으로 잡으려다가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다쳐 안타깝게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또 필자의 대학생 아들도 작년 말께 대학구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의없이 타다가 넘어져 장기간 치료를 받은 아찔한 경험이 있었다.

아직 우리지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많지 않아서 그 위험성이 피부에 와 닿지 않지만, 도시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동장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자 몇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만16세 이상 그리고 운전면허(오토바이나 PM면허)가 있어야 한다. 초·중학생들이 무분별하게 타고 다니는 건 막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성인들도 운전 면허가 없으면 탈 수가 없다. 무면허 운전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둘째, 어린이는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없다.

어린이들이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다니는 것도 금지된다.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경우 어린이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셋째, 개인형 이동장치는 한사람만 탈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동승자 탑승 금지는 현재도 불법이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5월부터는 동승 할 경우 20만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된다.

넷째, 탈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모(헬멧)에 관한 처벌도 다시 부활했다. 안전모 미착용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섯 번째, 야간에 운행시 등화장치를 해야 한다. 등화장치 작동도 안전모 착용과 마찬가지로 처벌 규정은 없지만 의무이다.

지난해 12월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처벌 규정이 사라졌는데 5월 개정안이 시행돼 야간에 등화장치(전/후미등)을 등화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다.

마지막으로 과로운전 및 음주운전 금지다.

과로 및 약물 복용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모두 교통법규를 잘 지키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자.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지방교부세 최다 감액 광주·전남의 굴욕

광주와 전남지역의 지방교부세가 각각 11억400만원, 10억800만원 감액 조치돼 17개 시·도 가운데 1, 2위의 수모를 안았다. 코로나19로 씀씀이가 확대되고 있는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법령을 위반해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거나, 수입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 한 자치단체에 대해 교부세를 감액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감액된 재원은 재정혁신 등 우수 지자체의 인센티브로 활용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행안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재원 인센티브 배분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반영되는 자치단체별 지방교부세 감액 재원은 62억1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감액폭이 가장 큰 곳은 광주 광산구 10억원, 그 다음은 화순군 9억400만원이었다. 또 광양시는 2억9천600만원, 광주시 1억6천4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광산구는 황룡강변 시민운동장 조성 특별교부세 신청·교부 부적정, 광양은 광양항 배후단지 임대료 과소 부과가 드러났다. 화순은 식품산업단지 분양업무 처리 및 공동육묘장 설치사업 보조 부적정, 광주시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추진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반면, 울산시는 재정혁신(3억원)과 세외수입 혁신(4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어 경기 수원시는 3억2천500만원, 안산시는 3억원을 챙겼다.

광역자치단체론 경기도가 지방교부세 차액(인센티브-감액)이 15억6천만원으로 최고였다.

지방 재정분권 흐름에서 교부세 감액 규모가 확대되면서 광주와 전남 지자체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교부세 감액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일수록 충격이 더한다. 코로나 사태 속 대략 난감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세출 절감 및 세입 증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세수가 줄어들고 있고 사정이 다르겠지만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 혁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재정의 자율성 확보 및 책임성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지오푸드에 주목한다

무돌저잣거리동동주, 전통두부, 청국장, 짚불오겹살, 황칠백숙, 연잎차, 허브꽃차…. 국내 최초로 노르웨이 '지오푸드(GEOfood)' 네트워크에 가입된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품목이다.

지오푸드는 노르웨이의 마그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서 지난 2015년에 설립해 운영 중인 지역향토음식 브랜드다. 해당 지역에서 재배하거나 생산된 농산물, 음식, 음료 등에 국제적 브랜드를 적용해 홍보함으로써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

현재까지 포르투갈, 이탈리아, 핀란드 등 총 10개국 17곳의 세계지질공원이 가입했으며,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와 이란에 이어 3번째다. 지오푸드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의 가입과 동시에 세계지질공원 전체에 가입 환영을 알렸다.

아울러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시스템(SNS)에 무등산권 지질공원의 대표 명소인 서석대, 입석대, 화순 서유리 공룡화석지, 적벽 등의 사진을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오푸드 네트워크는 운영주체인 마그마 세계지질공원의 사전 조사를 거쳐 적격 판정 후 가입 절차를 진행한다. 무등산권은 지난해 2월 무돌저잣거리동동주 등 협력업체 7개 상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후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는 무등산권 자체브랜드인 '지오브랜드'를 지질공원 특화마을(지오빌리지)인 청풍마을, 지질공원 협력업체(지오파트너) 등과 지속적인 주민 회의를 거쳐 품목 및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 결실을 맺었다.

시는 선진화된 유럽 지질공원과의 교류를 통해 소득 창출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오푸드 네트워크 공식 로고를 사용한 소간판, 상품 포장 등을 활용해 국내외에 널리 알림으로써 수익 증대를 도모하게 된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의 지오푸드 가입을 환영한다. 유럽, 남미 등으로 지역에서 재배한 농산물, 음식, 음료가 진출함으로써 세계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단순한 브랜드를 넘어 기념비적인 의미를 더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픽 뉴스

1월 1-20일 수출 10.6%↑…일평균으로도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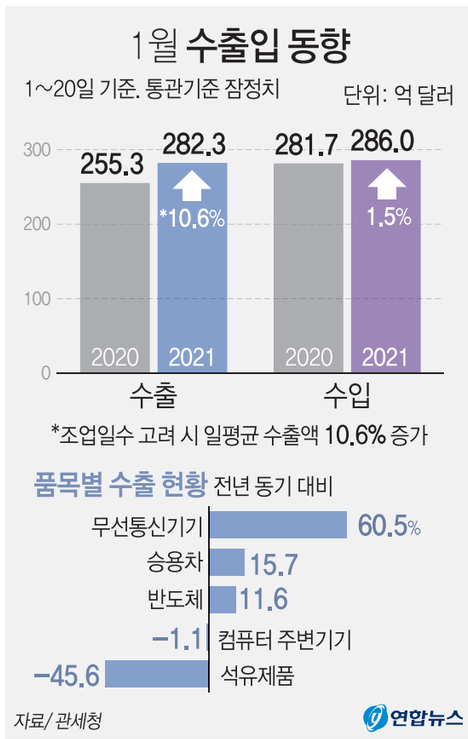
1월 들어 20일까지 수출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월간 수출액이 석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282억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6%(27.0억달러)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4.5일로 작년과 같아 일평균 기준으로도 10.6% 증가했다. 월간 수출액은 작년 11월 4% 증가로 돌아선 데 이어 지난달 증가율이 두 자릿수 로 확대되며 회복세를 보였다.

반도체(11.6%), 승용차(15.7%), 무선통신기기(60.5%) 등 수출액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석유제품(-45.6%)과 컴퓨터 주변기기(-1.1%) 등은 줄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중국(18.6%), 미국(18.6%), 베트남(13.4%), 유럽연합(EU·16.0%) 등으로는 늘었지만 일본(-10.9%)과 중동(-15.1%) 등으로는 감소했다. 이달부터 EU 통계에서 영국이 빠졌다.



수입은 286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4.2억달러)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수출액보다도 4억달러 많다. 수입 상대국별로는 일본(29.9%), 중국(8.1%), EU(6.6%) 베트남(3.5%) 등은 증가했고, 미국(-12.4%)과 중동(-37.4%) 등은 감소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 장 馬亨列 사 장·발행·편집인 朴俊洙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李庚秀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체육부 650-2065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사진부 650-2080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논설실 650-2006	기획사업국 650-2079	업무국 650-2019
문화부 650-2067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CMYK